

토비트의 치료

1649~50년경

렘브란트는 이 그림으로 신에 대한 신앙의 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구약성서의 예를 그리고 있다. 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, 병은 신의 노여움의 결과라고 생각 되었다.

그러나 그 치료는 초자연적이어서 때로는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것 만으로도 낫는 일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했다.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던지, 병자가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던지 접촉을 중시 하였다. 그리스도의 이 기적적인 면이 적어도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서 강조되고 있다.

— 베드린 국립박물관 소장 —



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